

02

[전통 천연섬유산업의 미래]

『안동포 보존과 산업화』

김 문 년

안동시 전통산업과 한방산업팀장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동포 보존과 산업화

2017

안동시 전통산업과
보건약박사 **김문년**

Contents

1. 안동포 사업 추진현황
2. 안동포 전승의 문제점과 대책
3. 안동포 산업화 및 활성화 방안

1.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성장 거점도시 안동



2. 안동의 역사

- ※ **선사시대** BC 4만년(마애 선사유물 371점)
- ※ **상고시대** 창녕국 전국(BC57)
- ※ **삼국시대** 고타야군(505)
- ※ **통일신라** 고창군
- ※ **고려시대** 안동부(930, 태조 13년), 영가·길주·북주, 안동대도호부(1362)
- ※ **조선시대** 안동대도호부, 안동관찰부(1895, 경상도 동북부 17개군 관할)
- ※ **1896. 8. 4** 지방제도개편시 관찰부 폐지, 안동군
- ※ **1963. 1. 1** 안동읍이 안동시로 승격, 안동시와 안동군으로 분리
- ※ **1995. 1. 1** 안동시·안동군 통합 → 안동시로 개편
- ※ **2016. 3. 10** 경상북도 신청사 개청식

3. 안동의 역사성(시대별 국가통치이념 중심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행복안동

고려시대

- 고려태종 「왕진」 안동병산전투승리가통일의 전기(930년)
-왕진을 도와준 김선평, 권행, 장정필에 태사벼슬 하사
- 여몽연합군 일본정벌 시 「충렬왕」 안동에 1개월 머무름(1281년)
-당시 고려 재상이자 도원수가 안동출신인 충렬공 김방경
-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공민왕」 과전 왕실이 안동으로 몽진
-1361. 12 ~ 1362. 2(70일간 임시수도)

화엄사상

조선시대

- 조선조퇴계 이황선생 성리학(국가통치이념)
- 조선중기 명재상으로 임진왜란을 극복한류성룡

성리학

구한말

- 구국의 일념으로 활화산처럼 일어난 안동
-최초의 독립운동(1894년 7월 갑오의병, 안동 서상철)
- 독립운동가들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1,100여명)

독립운동

현대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한국국학진흥원, 독립운동기념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정신문화

4. 일반 현황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행복안동

행정규모

- 면적 1,521.82Km²
- 인구 168,798
- 공무원수 1,316명

재정규모

- 예산규모 8,660억원
- 일반회계 7,545억원
- 특별회계 1,115억원
- ※ 재정자립도 1263%

도시여건

- 주 택 보 급 74,763호(보급률 112.5%)
- 도 로 포 장 총 1,689.5km, 포장 1,188.1km(포장율 70.3%)
- 자동차등록 71,929대(세대당 1대)
- 교 육 환 경 대학 4, 초.중.고 57, 특수 2, 학생 36.3천명
- 상수도보급률 91.5% • 하수도보급률: 78.9%

5. 안동의 자랑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해복안동

-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2006. 7. 4 특허등록)
- ※ 전국 시중 가장 넓은 면적 : 1,521.91km² (서울시의 2.5배)
- ※ 자연 상태의 문화재 최대보유 : 319점(국가 93, 도 226)
- 하회마을 세계유산등재(2010. 7. 31)
- ※ 조선조 과거 급제자 1,220명, 독립유공자 357명



Andong, the Capital of the Korean Spirit | www.andong.go.kr

7

6. 안동을 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 하는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 ※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로지향(鄒魯之鄉)의 도시** (2006. 7. 4 특허등록)
- ※ 한국 유일의 지역학인 「**안동학**」이 정립된 도시
- ※ 대구 경북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교육도시
- ※ 독립 운동가를 최다(1,100여명)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
- ※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보협동의 도시**(사회복지시설 전국최다 / 72개소)
- ※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인 **탈춤놀이와 민속의 축제도시**
- ※ 유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수집·연구·교육하는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Andong, the Capital of the Korean Spirit | www.andong.go.kr

8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의 유래

- ◆ 안동포는 신라 선덕여왕(632-646년)때 가배절 베짜기 경기에서 최우수품 뽑혔음.
- ◆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 15새(보름새)를 진상되었음.
- ◆ 1927년「조선여속고」 문헌에 따르면 “안동포가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기록이 있어 조선시대 궁중옷감으로 사용.
- ◆ 안동포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특산품임.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 제작과정



1. 대마의 경작과 수확



2. 삼짜기



3. 짜낸 삼말리기



4. 겹질 벗기기



5. 겹겹질 훑어내기



6. 계추리 바래기



7. 삼짜기



8. 삼 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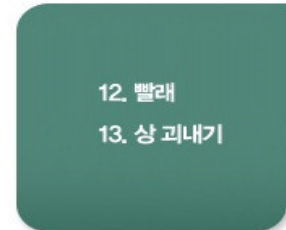
9. 베 날기



10. 베 매기



11. 베 짜기



12. 빨래
13. 상 과내기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전시관 현황

- ❖ 위 치 :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 ❖ 시설규모 : 부지 15,017㎡(4,543평), 건물 1,101㎡(333평)
- ❖ 주요시설 : 전시·판매장, 체험장, 사무실 등
- ❖ 위탁기관 : 동안동농업협동조합(대표자 : 임낙현)
- ❖ 위탁기간 : 2017. 01. 01 ~ 2018. 12. 31(2년간)
- ❖ 직원현황 : 3명(안동포전시관장 외 2명)
- ❖ 운 영 비 : 170백만원(시비 85, 자부담 85)
- ❖ 위탁내용 : 안동포전시관 운영관리, 상품개발·유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 ◆ 안동포전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위탁사무처리 평가) 후 재협약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사업 현황

- ❖ 총사업비 : 134억원(국비78, 도비 10, 시비27, 민자19)
- ❖ 위 치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
- ❖ 사업기간 : 2013 ~ 2017년(5년간)
- ❖ 사업규모 : 72,023㎡
- ❖ 사업내용 : 디자인하우스 400㎡, 안동포전승교육관 1,009㎡, 천연염색체험장 36㎡, 경작체험농장, 어울림 마당, 편의시설 등
- 안동포를 체계적인 활용방안으로 전승공간 확보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전수기회 확대/ 우수한 디자인과 삼배기능을 전시판매, 체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추진상황

- ❖ 2008. 09 :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3대문화권사업 선정
- ❖ 2010. 03 : **3대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수립(문광부)
- ❖ 2012. 12 : 투융자 심사(경북도)
- ❖ 2013. 0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동엔지니어링 외 1)
- ❖ 2014. 09 :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 결정)
- ❖ 2014. 12 :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공원조성계획)
- ❖ 2015. 05 : 안동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 2015. 10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승인 신청
- ❖ **2016. 02 : 공사 착공**(취산종건)
- ❖ 2016. 06 : 안동포문화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2017. 10 : 기반조성공사 및 건축공사 준공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

■ 조성계획도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대마재배 현황

연도별 대마 재배 현황

연도별	허가농가수	실경작농가수	재배면적(m²)	재배면적(ha)	채취시기
2008	166	98	382000m²	38.2ha	6~7월
2009	118	61	192000m²	19.2ha	6~7월
2010	86	46	168320m²	16.8ha	6~7월
2011	84	36	134927m²	13.4ha	6~7월
2012	84	32	56883m²	5.69ha	6~7월
2013	85	32	46932m²	4.69ha	6~7월
2014	85	35	35986m²	3.59ha	6~7월
2015	33	24	24833m²	2.48ha	6~7월
2016	36	14	14,715m²	1.48ha	6~7월
2017	38	19	12,000m²	1.2ha	6~7월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대마 수확 및 찌기



17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 사업 추진 현황

❖ 안동포전시관 운영(3,100백만원 투입, 2007년 준공)

- 민간위탁 운영업체 : 동안동농업협동조합(2011년~현재)
- 운영비 지원 : 170백만원 (시85, 자85)

❖ 안동포 및 무삼 길쌈인력 양성사업

- 사업비 : 160백만원 (도112, 시48)
- 사업내용 : 안동포 및 무삼 길쌈기술 전승 교육(안동포 10명/무삼 20명)
- 보조사업자 : 동안동농업협동조합

❖ 무삼공예활성화지원사업

- 사업비 : 100백만원 (도70, 시30)
- 사업내용 : 무삼을 활용한 공예 교육(염색, 자수, 그림, 우리 옷)
- 보조사업자 : (사)안동규방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 사업 추진 현황

❖ 전통 안동포 및 무삼총람 편찬

- 사업비 : 80백만원 (도56, 시24)
- 사업내용 : 전통 안동포와 무삼짜기 전 공정과정의 표준화된 지침서 개발
- 보조사업자 : 국립안동대학교

❖ 안동포 및 무삼 활성화 기획 프로젝트

- 사업비 : 80백만원 (시80)
- 사업내용 :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특별 기획보도 연재
- 보조사업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 안동포 직녀 베틀방 행사

- 사업비 : 50백만원 (도35, 시15)
- 사업내용 : 삼 삼기 및 베틀 짜기 시연, 안동포 공연 및 패션쇼, 공예체험, 견우와 직녀 마당극 등
- 보조사업자 : 안동포생산자조합(임하면 금소리)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무삼공예활성화 사업추진

무삼을 활용한 공예품 개발과 여성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2017년 3월 7일** 오전 11시 안동시 후면 광음리 소재 (사)안동규방에서 기관단체장 및 교육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삼공예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교육 개강식** 개최.

교육기간은 **2017년 3월 7일 개강식**을 시작하여 6개월간이며 교육내용은 무삼을 활용한 실용 규방공예 전반 교육인데 실용규방공예, 천연염색, 그림(동양화), 생활자수 등이며 9월 중순경에 **서울 인사동(가나인사아트)**에서 결과 발표 및 작품 전시회도 가질 예정임.

2016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안동무삼, 규방공예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작품 전시회 개최.

세계적인 한복패션디자이너 이영희(영화배우 전지현 시할머니)님 귀국에 맞춰 **9월 22일** 오후 2시에 김관용 도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사모님과 경북 및 안동시 여성단체장과 회원, 경북회 및 능금회원, 교육생 등 100여명이 참석 **개막식** 개최.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와 무삼 길쌈기술 양성교육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 활성화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 활성화

- 안동포전시관 운영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안동포 민화 공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안동포와 무삼 전통길쌈 기술 전승에 나서 “전통기술 단절 위기 극복”



경상투데이

2017년 03월 30일 (목)
지역 06면



안동시는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안동포전시관에서 안동포와 무삼 기능인력 양성교육에 들어갔다.

‘명품’ 안동포·무삼 명맥 길이길이

기능인력 양성교육 개강

윤재철 기자chal2015@naver.com

‘안동포짜기’는 경북도 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전통특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으로 인한 대마재배 생산량 감소, 기능보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전통기술 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안동시는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안동포전시관에서 안동포와 무삼 기능인력 양성교육에 들어갔다.

교육 기간은 2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이곳에서 안동포와 무삼짜기 전 공정과정 이론과 단계별 전문실습 교육을 실시하는데 12월 결과 발표와 전시회를 개최한 후 길쌈기술 우수 교육생에게는 수료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김광섭 전통산업과장은 “안동포와 무삼의 뛰어난 실용성과 기능성을 되살리기 위해 길쌈기술 전승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동포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며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118 X 180 mm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짜기 시연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짜기 시연



27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 기능인력 양성교육



28

andongpo tongsungsaep chujinhwanhang

jeontong andongpo hongbosaeop

영남일보
The Yeongnam Ilbo

2017년 06월 07일 (수) 지역 12면

andongpo myeongmaek kkulgira... "daejungwa·myeongpumwa·gwanwangjaryunghwa jeoguk chujin"

andongsi 'wigui-ui andongpo salrigi' seodulri

예로부터 안동에서 제배한 대마로 짠 배 (布)를 다른 지역에서 만든 배와 구별하기 위해 '안동포'라 한다. 이 같은 명성은 안동 임하·서후면 일대의 기후와 토질이 대마 재배에 적합한 데다 우수한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싼 가격, 대체 섬유 등장, 제조과정의 복잡성, 대마재배 기피 등으로 인해 전통 특산물임에도 경제성이 낮아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전문인력을 배출해내기 힘들 뿐 아니라 기존 전문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안동시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안동포의 현실

조선시대 진상품으로 올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 비싼 가격에 팔리던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안동포가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우선 안동포 원료인 대마의 재배 면적이 급감했다. 2008년 38.2ha에서 2011년 19ha, 2012년 5.09ha로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임하·서후면 일대 1.48ha에만 재배될 정도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 재배면적이 급감한 것은 안동포 가격이 너무 비싼 데다 인기도 예전만 못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질 좋은 화학섬유가 쏟아져 나온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힘든 생산과정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경제성이 낮은 점도 안동포 인기를 시들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농민은 3월 말 대마를 파종한 뒤 대마 하순부터 삼을 수확해 곱질을 벗긴 뒤 복잡한 가공을 거쳐 안동포를 만든다. 수작업으로 삼 곱질을 제고 삼을 곱고 짚을 이어 실로 만드는 삼심기 작업을 한 다음, 배틀에서 배를 짜고 상과짜기(염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만 경제성은 높지 않다. 이러다 보니

◆현실은

재배·가공 까다롭고 가격 비싸
원료 대마 생산량 해마다 감소
길잡이를 전수자 찾기도 힘들어

◆대책은

지인 늘려 대마 생산기반 확충
기술전수 인력 양성에 힘 쏟아
전시·판매·체험공간 조성나서

안동포 짜기(길쌈)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무로로 교육하고 식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겨우 교육생을 모을 수 있을 정도다.

최근 들어 비싼 장예문화도 안동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매장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안동포가 수의 (壽衣)로 가장 많이 사용됐으나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안동포 소비도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음력 윤 5월의 경우 수의의 장만이 급격히 증가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수의를 장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윤달이면 으레 수요가 급증해 안동포 구하기가 힘들

고, 그만큼 가격도 올랐지만 올해는 그런 기대는 볼 건다 간 상태라는 게 상인의 이야기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동포 소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근래 볼고 있는 웰빙바람이 안동포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적지 않다. 웰빙시대를 맞아 여름철 시원한 느낌이 뛰어난 안동포에 폭염처럼 시원한 색으로 염색하게 되면 최고의 의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동포를 붙들고 있는 수요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한다.

◆대중화로 위기 극복 나선다

안동시는 안동포 명품화에 나서기로 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대마 생산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4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마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재배농가에 종자대과와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위기의 요인인 안동포 기술자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안동포전시관을 위탁·운영하는 동안동농협(대표장 임우현)과 함께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안동포 길잡이를 전수하는 물론 무삼 길잡이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안동포를 널리 알리는 방안으로 무삼공예 활성화와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유복인 안동포짜기 기능보유자(오른쪽)가 안동포를 짜기 전에 삼베 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있다. 안동시는 <1>안동규방과 함께 무삼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삼을 활용한 공예품 개발, 천연염색, 그림, 자수, 규방공예, 작품 전시회 등을 열고 있다. 안동포를 활용한 '안동포 치내 배틀방 행사'라는 제왕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인과 안동포의 접점을 찾고 있다. <2>안동포생산자조합과 함께 삼심기 및 배짜기, 안동포 배틀노래 공연, 향유나·민화바자 등 공예체험, 견우와 견녀 마당극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전시·판매 기능을 하는 안동포타운과 함께 안동포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디자인, 전시·체험 기능을 담당할 전통민화길쌈마을 조성사업'도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7여년을 들여 임하면 금소리에 조성하는 전통 빛다래길쌈마을에는 안동포전승교육관(1천90㎡)을 비롯해 디지털하우스(400㎡), 대마세련장(389㎡), 대마전조경(160㎡), 대마경작 체험농장, 길쌈광장, 편의시설 등 안동포 전승을 위한 복합공간

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전통문화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안동대와 함께 안동포 및 무삼 용품을 판매한다. 김문선 안동시 한방산업팀장은 "대마재배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안동포 길잡이를 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안동포의 무삼기능인력을 구간에 양성하고 있다"며 "전통 안동포를 명품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이우경기자 uky@yeongnam.com

29

andongpo tongsungsaep chujinhwanhang

jeontong andongpo hongbosaeop

대경일보

2016년 09월 23일 (금) 종합 03면

안동 무삼을 활용한 공예품을 개발하여 2016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안동무삼, 규방공예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음.

개막식은 세계적인 한복패션디자이너 이영희(영화배우 전지현 시할머니)님 귀국에 맞춰 9월 22일 오후 2시에 김관용 도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사모님과 경북 및 안동시 여성단체장과 회원, 경북 및 능금회원, 교육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음.

'안동 무삼, 규방공예를 만나다'



22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열린 '안동 무삼 공예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관용(김관용 경북도지사 부인, 사진 오른쪽) 여사와 새싹문화사 회원 등이 전시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인사동 갤러리 경북서
도, 안동무삼 공예품 전시회
침선·그림 등 작품 선보여
문화산업 진흥·발전 기여

경북도는 22일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경북에서 '안동 무삼, 규방공예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안동 무삼 공예품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관용 도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의 부인들을 비롯해 능금회, 경북화, 새싹문화사 등 경북지역의 대표 여성단체회원, 이영희 한복패션디자이너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에는 8명의 무삼공예 교육생들이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무삼을 소재로

만든 침선, 그림, 자수 등 규방공예 작품 100여 점과 천연염색, 한복 등 (사)안동규방김연호 대표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안동 삼베는 대마의 곁집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부드럽고 고운 것은 '생방이', 그다음은 '약방이', 가장 거칠고 역센 것은 '무삼'이라 한다. 이중 생방이로 짠 것을 '안동포'라고 하며 '안동포짜기'는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다. 현재 안동포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지역의 대표 전통 특산물이지만 기능보유자의 고령화와 이수교육 희망자 부재로 인한 전통기술 단절 위기, 까다로운 공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침체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북도는 안동시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안동포 길쌈 전통기술의 계승·발전과 안동 '무삼' 관련 문화산

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안동포 대부분이 수녀나 여름옷 등 옷감용으로만 소비되는 상품 다양성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생산이 쉽고 실용성이 높은 '무삼'을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2012년부터 '무삼공예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시회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장수를 간직할 경북도는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단절의 위기에 놓인 안동포를 되살리고 무삼 관련 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청본사/안상수 기자
ass1920@naver.com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31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전통 안동포 홍보사업

대구영남대일

2016년 09월 23일 (금)종합 02면

“전통 단절 위기에 놓인 안동포 되살리자”

‘안동 무삼 공예품 전시회’ 개막

경북도는 22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안동 무삼 공예품 전시회’를 개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관용 도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의 부인들을 비롯해 능금회, 경북회, 새살림봉사회 등 경북 지역 대표 여성단체회원, 이영희 한복패션디자이너, 교육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에는 80명의 무삼공예 교육생들이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무삼을 소재로 만든 침선, 그림, 자수 등 규방공예작품 100여점과 천연염색, 한복 등 (사)안동규방 김연호 대표의 작품 100여점을 선보인다.

현재 안동포는 지역의 대표 전통 특산품이지만 기능 보유자의 고령화와 이수 교육 희망자 부재로 인한 전통기술 단절 위기, 까다로운 공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높은 가격대와 상품 다양성 부족의 문제 등으로 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북도는 안동시와 함께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안동포 길쌈 전통기술의 계승·발전과 안동 무삼 관련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안동포 대부분이 수의나 여름 옷 등 옷감용으로만 소비되는 상품 다양성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생산이 쉽고 실용성이 높은 무삼을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2012년부터 무삼공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시회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신용진 기자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전통 안동포 홍보사업



경북매일

2016년 09월 26일 (월)
지역 10면

‘안동무삼 공예’ 서울 인사동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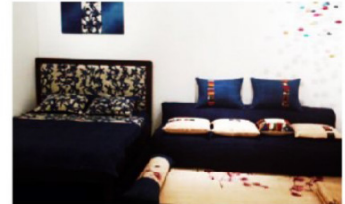
내일까지 150여점 선보여

【안동】 안동의 무삼을 활용한 공예전시회<사진>가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일간 서울 인사동 갤러리 경북에서 ‘안동무삼, 규방공예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총 1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2일 오후에 열린 개막식에는 세계적인 한복패션디자이너 이영희씨와 김관용 도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부인과 경북 및 안동시 여성단체장과 회원, 경북회 및 능금회원,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무삼공예 전시작품은 교육생 80명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무삼



을 활용한 염색, 그림, 자수, 규방 작품 등 50점과 (사)안동규방 김연호 대표가 만든 100점으로 총 150여점이다.

김광섭 안동시 전통산업과장은 “무삼의 뛰어난 기능성과 실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무삼 관련 산업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118 X 99 mm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무삼공예활성화사업 추진



안동포 전승사업 추진현황

안동포 평가 후 시상



35

안동포 전승의 문제점과 대책

안동포 전승의 문제점 (1)

- ◆ 최근 중국산 급증, 판로애로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 급감
경제성이 낮아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기능보유자 고령화,
교육생 참여 기피, 상품 다양성의 한계 등으로 전통기술이 단절위기.
- ◆ 안동포 관련 부서 다원화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 불편 초래
 - 1) 안동포전시관 운영관리(전통산업과)
 - 2) 전통빛타래길쌈마을조성(유교신도시진흥과)
 - 3) 안동포 정보화마을 운영(공보전산실)
 - 4) 안동포 기능보유자(문화예술과)
 - 5) 대마 종자대 지원(유통특작과)
 - 6) 대마재배기술 보급 및 수확기계 지원(농업기술센터)
 - 7) 대마재배 신고관리(보건위생과)
 - 8) 생산장려지원(농정과)
 - 9) 사회적 기업관리(일자리경제과)
 - 10) 길안천고향의강정비사업(안전재난과)

36

안동포 전승의 문제점과 대책

안동포 전승의 문제점 [2]

- ◆ 안동포마을(금소리) 직능단체 다원화로 갈등 상존
동안동농협, 정보화마을, (사)안동포생산자조합, 금소리 자치회, 금소1리 및 금소 2리, 금소1.2리 통합회장, 부자마을(금소영농조합) 등
- ◆ 공정과정이 복잡 : 13개 공정, 장기간 소요 (6세 1필 가공에 1주일 소요)
- ◆ 고령화로 기능 전수 기피, 값싼 시공 (6세 1필 짜는데 24만원)

안동포 산업화 및 활성화 방안

안동포 활성화 이유

- ❖ 유교문화와 전통의복 안동포,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성장 과제임
 -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 ❖ 2012년 지리적단체포장 등록
 - ❖ 안동포타운, 전통빛타래길쌈마을 등 이미 많은 투자
 - ❖ 지역생산 원료사용 유일한 특산품(안동문어, 간고등어는 타지 원료사용)
 - ❖ 대마산업 육성 : 대마의 향균, 항독성, 방충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대마 제품 산업화 가능성 무궁무진(미래의 신성장동력)
- ex) 기능성식품,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침대시트, 대마오일, 친환경 벽돌 등 건축 자재, AI 및 구제역 백신, 섬유, 탄성소재, 아토피 치료제, 항암제 개발, 노화방지, 치매 예방 등

안동포 전승의 문제점과 대책

안동포 활성화 대책

- ❖ 안동포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부서 선정
- ❖ 안동포관련 단체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 ❖ 안동포·무삼 기능인력 양성교육 및 교육생 지원
- ❖ 대마재배 장려금 지원[유통특작과]
 - 2018년 계획 ⇒ 3ha, 190,200천원
(반당 종자대 300천원+비료대 40천원)×30반=10,200천원
- ❖ 안동포 생산장려금 지원[전통산업과]
 - (반당 가공인건비 300천원×50/100×40필)×30반=180,000천원
* 반당 : 300평/ 40필, * 7세 기준 수공비 : 30만원(50%지원)
 - 대마(Hemp) 기능성제품 연구개발 육성

안동포 전승의 문제점과 대책

안동포 활성화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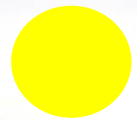
- ❖ 안동포 천년의 혼을 새천년의 혼으로 잇기 위해 노력
 - 대마 생산기반을 확충
 - 안동포와 무삼 길쌈기술 양성교육
 - 무삼을 활용한 규방공예품 개발과 전시회 개최
 - 전통 안동포와 무삼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 안동포 직녀 베틀방 행사
 - 안동포 패션쇼
 - 안동포 전국사진촬영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안동포 활성화에 주력

안동포 산업화 및 활성화 방안

향후 추진계획

- ❖ 대마재배 생산기반 확충
- ❖ 안동포 및 무삼 길쌈기술 전승교육으로 전통문화 계승
- ❖ 안동포 스토리 콘텐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 관광 체험객 유치 활동
- ❖ 대마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영농 보조금 지원
- ❖ 안동포 기능보유자(무형문화재) 및 전수조교 지정 확대
- ❖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사업 연계 추진 방안 모색 등

감사합니다



kmn2001@korea.kr

T. 010-9776-1922

김문년